

當面問題解決과 相互協力

本會長足の 發展을 祈願

(延世大醫大 教授) 文 榮 漢



韓日 産業保健 學術集談會는 韓國과 日本 兩國의 産業保健 및 産業衛生關係者의 學術 交流를 통해서 兩國의 産業保健의 向上에 寄與하기 爲해서 發足되었는데 第1회는 서울에서 大韓産業保健協會 主催로 1984年 120餘名이 參加하는 가운데 盛大히 開催된바 있다.

第2次 韓日産業保健 學術集談會는 1985年 4月 5日(金)에서부터 4月 6日(土)까지 由緒깊은 日本國의 京都에서 開催되었는데 韓國側 參席者 41名을 包含해서 日本人과 全體 80餘名이 모인 가운데 始終一貫 진지한 雰圍氣속에서 集談會를 갖게 되었다

첫날인 4月 5日(金)은 京都市內의 上京區에 있는 京都 堀川會館에서 午前 8時부

터 9時까지 參席者 登錄을 하고 兩國代表 委員인 齊藤 一 (日本 勞動科學研究所 常務理事)와 曹圭常 (大韓産業保健協會長)의 開會辭가 있었는데 本 集談會를 통해서 技術革新에 隨伴해서 생기는 事業場에 있어서의 作業環境의 變化와 職業病發生 問題等 兩國에 共通된 課題에 關해서 學術情報 交換을 하는 것과 産業保健 活動을 爲한 組織體系의 適用上의 相違한 點을 檢討하여 問題 解決을 爲한 捷徑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라는 부탁 말씀이 있었다.

集談會 프로그램은 4月 5日(金) 午前에 第1部로서 職業病과 塵肺에 關한 韓日兩國의 學術論文 發表가 있었고, 第2部는 同日 午後에 特殊健康診斷과 環境問題에 關한 發表가 있었으며 當日 晝食時間을 利用해서 韓日 産業保健學術集談會에 關한 會則과 運營 問題에 關한 事前 檢討가 있었고 午後 5時부터는 總會가 開催되어 集談會 運營細則을 通過시키고 兩國의 代表委員을 日本側 齊藤一, 韓國側은 曹圭常으로 定하고 任期는 3年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第3次 學術集談會는 韓國側에서 釜山地域에서 開催한다는 內容을 討議한 바

있었다.

午後 5時 30分 부터 堀川會館 볼·룸에서 精誠어리고 和氣靄靄한 가운데 餘興을 兼한 歡迎夕食會를 갖게 되어 主催側 (京都工場保健會)의 厚意에 깊이 感謝하지 않을 수 없었다.

4月 6日 (土)은 第3部로 場所를 京都市中京區西 1京에 있는 京都工場 保健會內 大講堂에서 中小企業에 對한 産業保健管理制度와 그 實務面에 關하여 진지한 討論이 있었으며 晝食은 京都 特色이 담긴 도시락을 먹고 난다음 工場保健會內의 各種 施設과 機資材를 구경하고 난다음 今般 集談會를 마치게 되었다.

演題發表에 있어서는 韓國側에서 10演題, 日本側에서 8演題 그리고 特別參席者로서 泰國에서 M.Wongphanich가 工場勞動者의 自主的 職業病·勞災對策에 對해서 1演題를 發表함으로써 全體 19演題가 마련되었으며 發表하는데 座長은 韓日 兩國에서 各各 1名씩 指名되어 討議를 進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중 第1部 發表에서는 日本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職業病對策에 關한 助成現況에 關해서 1977年부터 國家가 一部를 補助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 特히 特殊健康診斷에 對해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 負擔制度를 1961年에 처음 試圖되었음을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서 1981年부터는 資金 融資를 해 주는 制度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建設業의 産業災害에 關한 役學的 調查研究가 있었고, 製造業에 있어서의 産業災害의 發生要因에 關해서 危害條件을 內包하는 媒介物에 의한 事項과 不安全行爲가 關與하고 있음을 指摘하였고, 日本의 石綿關聯疾患의 現況에 對해서 石綿紡織 以外에도 石綿

세멘트, 自動車等의 부레크·라이닝·팩킹 제조공장에서 石綿肺가 發生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韓國 製造工場分野에 있어서의 塵肺症은 石炭鑛山, 石綿鑛山, 製鐵工場, 시멘트工場, 熔接工場, 窯物工場, 煉炭工場 etc에 關한 現況 報告가 있었다. 塵肺症의 肺機能障害에 關해서는 1966年부터 1984年까지 12年間의 調査成績에서 對象 炭鑛夫 10,432名中 1,070名이 塵肺合併症이 있었다고 報告하고 第1部 發表를 마치게 되었다. 第2部는 午後 1:00부터 같은 場所에서 續開되었는데 韓國人의 血中重金屬濃度 農村住民의 血中重金屬 分布에 關해서 發表가 있었고 鉛蓄電池 製造工場에서의 鉛中毒은 日本에서 作業環境改善과 保護服着用으로 鉛에 曝露低減에 努力해 왔으나 아직 Pb-B, ALA-U에서 要注意 限界를 넘는 作業者가 있음을 是認하였다. 鹽化비닐의 職業病에 關해서는 職業性的 acro-osteolysis에 關해서 2名의 疑症患者 發生을 報告하였으며 韓國의 有機鹽素系 農藥問題는 使用禁止 期間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調査가 必要함을 言及하였다.

日本에 있어서의 頸肩腕障害와 腰痛症 發生現況에 關해서 關西大學의 德永氏는 當初에는 키-관찰에게 發症하여 漸次 여러職種으로 번졌는데 腰痛에 있어서는 原材料를 손으로 움직이는 職種과, 라인 組立者, 保育園에 從事하는 者에서 增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日本 産業衛生學會에서는 이 問題에 關해서 評價를 爲한 check list와 定義와 分類에 對한 明確한 定正, 身體檢査의 實施에 對한 manual을 作成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Salmonella typhimurium T.A. System을 利用한 Ames의 突然變異原性 檢査에 關해서

서울의 大氣, 水質, 農藥 그리고 勤勞者의 尿를 採取해서 實施한 結果를 要約했는데 大氣汚染에서는 交通密集地域이, 水質汚染에서는 人口 密集地域이 더 많은 問題가 있다고 하였다.

韓國에 있어서의 海外就業者의 健康問題에 關해서 153,996 名이 海外就業을 하는데 大部分이 中東地域과 아프리카 地域인데 氣候, 習慣, 宗教, 食品, 衛生施設 風土病等 많은 要素가 關聯되어 있으므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問題發生 防止를 위한 政府當局에서의 積極的인 對策이 要望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第3 部의 發表는 4月6日(土) 京都工場保健會 3層의 宮木記念 홀에서 있었는데 全國勞働衛生團體 連合會의 活動에 關해서 同會의 專門委員長인 戶田가 發表했는데 連合會活動은 勞働安全衛生法, 塵師法 그리고 作業環境測定法 等の 法的根據下에 業務를 遂行하는데 産業醫의 配置와 職務等에 關心을 모았고 一般健診을 包含해서 特殊健康診斷을 實施하는 것은 全國의 72% 分에 該當하는 것을 處理하고 作業環境測定에 關與하는 機關은 43개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技術職員의 研修活動에 積極參與하고 精密檢査에 對한 最終精度 管理를 實施하고 共同研究事業에 着手하고 있다고 하였다.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日本의 事業保健 活動에 있어서도 역시 問題되고 있는것은

50人 以下(有害業所는 30人 以下)의 勤勞者를 雇用하고 있는 事業場을 包含한 中小企業體로서 이들은 經營基盤이 弱하고 産業保健에 關한 認識이 낮고, 産業保健管理體制가 微弱함이 指摘되었다고 말하고 研究活動分野에 關해서는 産業保健活動 實態調查와 不健全한 業務와 環境에 對한 監視와 改善問題, 管理組織上의 缺陷改善, 下請業體에 있어서의 産業保健과 安全에 關한 問題, 政府의 役割에 對한 內容等이 있음을 紹介하였다.

마지막으로 大韓産業保健協會를 中心으로 한 産業保健 管理活動을 發表하였는데 産業保健活動에 關한 內容을 詳細히 紹介함과 아울러 管理 運營上의 課題로서 事業場에 있어서 使用主의 無關心, 保健管理者의 産業活動上의 未備點, 健康診斷의 不徹底, 零細企業에 對한 産業保健管理等이 있음을 指摘하였다. 第3 部의 發表에 있어서는 그 內容이 産業保健管理制度에 關한 것이였기 때문에 많은 質疑應答이 있었으며 兩國間에 있어서의 管理 運營上의 差異를 認識할 수 있었으며, 共通된 當面問題解決과 相互間의 激勵와 支援을 通해서 業務向上을 圖謀한다는 面에서 本 集談會가 큰 意義있었다고 보며 每年 있을 本 學術集談會에 큰 期待를 걸음과 同時에 本會의 長足の 發展을 祈願하여 마지않은 바입니다.

